

노동정책연구
2013. 제13권 제3호 pp.125~151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대학재학 기간의 휴학경험과 직장생활*

김현동*

2000년 이후 한국 대학생들의 휴학률이 높아지면서 휴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휴학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본 연구는 대학재학 기간 중 휴학하게 된 사유를 어학연수, 취업/진학준비, 그리고 경제적 사유로 분류한 후 노동시장 성과와의 연관관계를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자료(GOMS)」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대학 재학 기간 중 어학연수로 휴학을 하게 되면 취업/진학준비와 비교하여 임금수준은 높아지나 입사합격률은 낮아진다. 반면 경제적 사유에 의한 휴학은 취업/진학준비와 비교하여 임금수준을 낮추고 있다. 대학재학 기간 동안 경력목표를 설정한 직장인들의 임금은 경력목표가 부재한 직장인들보다 유의미하게 높다. 하지만 경력목표와 경제적 휴학 사유가 연관이 되면 대학졸업 후 임금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재학 기간 중 휴학을 선택하는 이유가 졸업 후 직장경력에 중요함을 입증하였다. 앞으로 대졸 직장인들의 휴학과 사회진출과의 연관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수행되기를 바란다.

핵심용어 : 휴학유형, 경력목표, 휴학경험, 취업성과

논문접수일 : 2013년 8월 26일, 심사의뢰일 : 2013년 9월 2일, 심사완료일 : 2013년 9월 5일

* 본 논문은 2013년 고용패널 학술대회에 발표된 필자의 논문의 일부에 기반을 두고 작성한 것이다. 논문투고 및 심사과정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심사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동국대학교(서울) 경영대학 부교수(kim1415@dongguk.edu)

I. 서론

휴학이란 재학 중이던 교육기관에 대한 소속을 중단한 상태인 학업중단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퇴학, 전출, 편입 등은 자의 또는 타의로 교육기관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휴학은 현 교육기관에 소속되어 학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어서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동기가 내재되어 있다(주회정·차성현·표민호, 2011). 현재 한국 대학의 휴학률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되어 3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휴학생 수는 2010년 이후 100만 명으로 집계되어 이제는 휴학생이 대학가의 계층군을 형성하고 있다(조선일보, 2012.12.7). 물론 한국의 남자대학생들은 군대의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실제 휴학률과 휴학생 수는 통계에 나타난 것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여대생의 휴학률이 18%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휴학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채재은, 2011).

하지만 아직까지 휴학에 대한 국내연구는 드문 편이다(채재은, 2011). 한국에서는 대학입시 경쟁이 치열하여 대학교에 입학하면 그 학교에서 졸업하는 것을 당연시 하여 왔다(이병식, 2003). 한국의 대학시장은 오랫동안 수요 우위로 구성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대학교 수는 늘어났지만 대학입시생의 수는 줄어드는 공급자 우위로 전환되면서 학업 중단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수의 국내 선행연구는 학업중단에서 자발적·비자발적 요소를 구분하지 않아 휴학에 대한 시사점이 명확하지 못하다(채재은, 2011).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게 된 계기를 개인적 특성(김성식, 2005) 및 교육기관의 특성으로(이병식, 2003) 분석하고 있다. 휴학은 대학생의 학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인과 더불어 다양한 변수들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채재은, 2011). 대학생 개인이 휴학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하므로 보다 포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대학생 개인이 휴학을 선택하는 원인을 어학연수, 취업/진학준비, 경제적 사유로 분류하여 휴학에 대하여 학업적 측면 외 다각도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 중에는 대학생들의 휴학을 설명하는 원인변수를 탐구한 것도 있다. 휴학은 학업 이외에도 개인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졸업 후 사회생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대학재학 기간 중 휴학을 선택하는 이유와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와의 연관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극소수의 선행연구(Oaxaca, 1973)에서만 휴학 여부를 통제변수로 임금의 차이를 분석해본 정도이다. 본 연구는 대학재학 중 휴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졸업 후 취업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휴학이 사회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검증해보고자 한다. 졸업 후 취업성고로서 임금, 졸업 - 직장까지의 소요기간, 입사지원 합격률¹⁾ 등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여 노동시장의 성과를 포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청년노동시장의 실업률이 7.7%로 다른 연령층의 실업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남재량 · 이철인 · 전영준 · 우석진, 2011). 청년노동시장에서 정규직 일자리가 감소되고 있어서 일자리의 질 또한 악화되는 추세에 처해 있다(남재량 외, 2011). 대학생들이 재학 기간 동안 경력목표를 설정하면 구직동기가 높아지고 취업준비활동이 활성화되어 졸업 후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anfer, Wanberg, & Kantrowitz, 2001). 사회 각계에서는 대학생들에게 가능한 경력목표를 조기에 설정하여 취업준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대학재학 중 휴학하는 사유는 다양하므로 경력목표와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으며 이는 졸업 후 직장생활에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학재학 기간 중 경력목표 설정, 휴학사유, 그리고 취직성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면 휴학의 역할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검증할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를 실시하여 대졸자의 대학시절 경험과 구직활동 그리고 직장생활에 대한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여 왔다. 본 연구는 GOMS를 활용하여 대학재학 기간 중 휴학을 선택한 사유와 졸업 후 직장생활에 대하여 다각도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GOMS는 대학생들이 휴학을 선택하는 이유를 다양한 항목으로 분류하여 이를 통해 휴학에 대하여 보다 깊게 분석할 수 있다. 특히 휴학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서구사회에서 이루어져 한국 사회에 연구결과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

1) 입사지원 합격률 = 입사 지원한 기업 합격 횟수/입사지원 횟수

들이 휴학을 선택하는 동기와 졸업 후 직장생활을 연계하여 분석하여 한국 사회에 적용되는 연구결과를 도출해내고자 한다.

II. 가 설

1. 휴학사유와 취업성과

국내외 선행연구는 대학생들이 휴학을 선택하는 이유를 대학생활의 부적응, 적성 불일치 등 학업적인 특성에서 분석하고 있다(Oseguera & Rhee, 2001; 채재은, 2011). 기존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휴학을 선택하는 이유는 학업적 측면 외에는 그다지 검증이 되지 못했다(채재은, 2011; 김수연, 2012).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휴학을 선택하는 이유를 어학연수, 취업/진학 준비, 경제적 사유 등 세 요인으로 분류하여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대학재학 시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휴학을 한 직장인들의 임금수준은 높으나 취업소요기간과 합격률은 낮아지게 된다. 어학연수는 일자리 취직요건인 ‘스펙’으로 간주된다. 대학생들은 어학연수를 통하여 해외교육기관에서 어학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어학능력이 졸업 후 일자리의 질을 결정짓는 요인이다(정태영·이기엽, 2005; 황여정·백병부, 2008). 대학생들의 어학연수 경험은 ‘스펙’을 충족시켜 정규직 취업확률과 임금수준이 높아지게 된다(황여정·백병부, 2008; 노경란·박용호·허선주, 2011; 이자형·이기혜, 2011). 이자형·이기혜(2011)는 해외연수 경험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노동시장의 성과를 매개한다고 분석하여 대졸 후 노동시장에서 해외연수 경험의 가치를 입증하였다. 어학연수는 어학능력 향상 이외에 구직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신호를 입사기업에 보내어 괜찮은 직장에 취직될 확률을 높인다. 이렇듯 어학연수는 대학생 구직자들의 취업준비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졸업 후 임금수준이 취업/진학준비로 인하여 휴학한 직장인들과 비교하여 높아지게 된다. 대학재학 중 어학연수로 인한 휴학은 구직자 개인의 능력개발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나타내어 입사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어학연수 경험은

취직소요기간을 낮출 수 있다.

한편 어학연수는 임금수준 및 취직소요기간과 달리 일자리에 합격될 확률은 낮추게 된다. 어학연수는 개인의 능력개발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 어학연수는 취업준비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어학연수는 대학생 구직자 개인 및 가정에서의 기대수준을 향상시켜 대기업/금융권 위주의 고임금·정규직 일자리를 찾게 된다. 박천수(2006)의 연구에서 해외어학연수는 대학졸업 후 구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어학연수에 대한 지나친 금전 및 시간 투자는 오히려 구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천수, 2006). 해외어학연수는 노동수요 측면에서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향상시켜 고용주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어 일자리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 그럼에도 어학연수경험은 구직자의 기대수준을 높여 일자리 합격률을 낮출 수 있다. 대학재학 기간 중 어학연수는 시간적·비용적 측면에서 상당한 투자이므로 구직기간 중 어학연수의 효용성에 대하여 고민하게 된다. 즉 대학생 구직자는 일자리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어학연수에 들어간 비용과 시간 그리고 일자리의 근로조건을 비교한다. 구직자는 어학연수에 들어간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일자리에 취직하고자 구직자 선호도가 높은 괜찮은 직장에 지원을 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재학 기간 중 어학연수 경험은 일자리 합격률을 낮춘다.

어학연수와 달리 대학재학 중 경제적 이유로 휴학한 직장인들은 괜찮은 직장에 취직될 확률이 떨어진다. 선행연구는 대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정규직 취업 여부, 임금수준, 직무만족도 등의 구직성과와 유의미한 연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황여정·백병부, 2008; 이자형·이기혜, 2011). 대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휴학하게 된다면 단시간 근로를 통하여 교육비와 생활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이찬영(2012)은 4년제 대학생들의 재학 중 근로는 학점을 낮추고 졸업 소요기간을 연장시킨다고 분석하였다. 학점, 졸업소요기간 등 학업성과는 취업의 질과 유의미한 연관관계를 지닌다. 재학 중 근로는 학업성과를 약화시켜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학재학 중 경제적 사유로 휴학하게 된다면 취업준비활동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 취업요건에 필요한 스펙을 갖추기 어렵다. 대학생 구직자가 경제적 사유로 휴학하게 된다면 일자리에 지원하여도 취업준비활동이 미비하여 취직소요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대학재학 중 경제상의 사유로 휴학한 직장인들의 임금수준과 일자리 합격률은 취업/진학준비로 휴학한 직장인들과 비교하여 낮아지게 되며 취직소요기간은 늘어나게 된다.

가설 1-1 : 대학재학 중 어학연수로 휴학한 직장인들은 취업/진학준비로 휴학한 직장인들과 비교하여 임금은 높아지며 취직소요기간과 합격률은 낮아지게 된다.

가설 1-2 : 대학재학 중 경제상의 사유로 휴학한 직장인들은 취업/진학준비로 휴학한 직장인들과 비교하여 임금은 낮아지며 취직소요기간은 늘어나게 된다.

2. 휴학사유와 경력목표 그리고 취업성과

경력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구직자들은 대학졸업 후 경력을 꾸준히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동기가 높다. 경력목표는 구직자들의 경력경로를 명확하게 만들어 진로개발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다. 대학 시절에 명확한 경력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면 구직활동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대학재학 시 진로개발활동이 구체적으로 실행된다면 졸업 후 경력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Kanfer et al., 2001). 하지만 경력목표는 휴학하는 사유에 따라 대학졸업 후 취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학재학 시절 경력목표를 뚜렷하게 설정한 직장인들이 취업/진학준비로 휴학을 한다면 대학졸업 후 취업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대학생 구직자들은 휴학기간을 활용하여 경력목표를 달성하고자 취업/진학준비에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어학연수로 인한 휴학은 취업/진학준비와 비교하여 경력목표와 긴밀하게 연계되기 어렵다. 어학연수는 어학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럼에도 대기업/금융권 정규직 중심의 팽창은 직장 취업 시 어학능력 외 다양한 능력을 고려하므로 어학연수와 경력목표가 정확하게 일치되기는 어렵다. 노경란 외(2011)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진로개발프로그램 참여경험은 대학생 구직자 개인의 능력향상이 수반되어야 졸업 후 직장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박재민·엄미정·김윤영(2008)은 대졸 신입사원의 대학전공과 졸업 후 직업이 일치되면 임금과 직무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입증하였다. 이렇듯 대졸 노동시장에서 대학생 구직자의 개인역량과 경력이 일치되어야 그들의 경력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대학생들의 어학연수 경험과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의 경력이 일치되어야 구직성과인 임금수준, 취직소요기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렇듯 어학연수 경험은 경력목표와 불일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동시장 성과인 임금수준과 취직소요기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적인 이유로 휴학한 대학생들 또한 경력목표가 설정되어 있어도 이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일례로 이들은 경력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진로개발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렵다. 설정된 경력목표는 경제적 사유로 휴학한 대학생들에게 현실과 거리감이 있는 높은 수준의 경력경로를 추구하게 만들어 졸업 후 구직성과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취업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의 경력목표 추구는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기회를 놓치는 악순환을 겪게 한다. 이렇듯 대학재학 중 경제상의 이유로 휴학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들에게 학창시절 설정된 경력목표는 임금수준을 낮추며 취직소요기간을 늘린다.

가설 2-1 : 대학재학 중 어학연수로 휴학한 직장인들이 대학 기간 동안 경력목표가 설정되었으면 이들의 임금수준은 낮아지며 취업소요기간은 늘어난다.

가설 2-2 : 대학재학 중 경제상의 이유로 휴학한 직장인들이 대학 기간 동안 경력목표가 설정되었으면 이들의 임금수준은 낮아지며 취업소요기간은 늘어난다.

Ⅲ. 실증연구 방법

1. 자료수집 절차 및 연구표본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2009년 이후부터 조사해온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를 활용하여 대학재학 시

휴학경험과 휴학 선택 사유가 직장의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는 대학졸업자의 약 2~3%를 선정하여 졸업 20개월 후 경제활동과 직업이동 그리고 대학시절의 경험 등을 조사한다(한국고용정보원, 2011).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에는 거주지, 사회경제 배경, 대학생활, 직장경력 등 다양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2009년과 2011년도에 조사된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의 표본크기는 각각 18,066명 그리고 18,078명이다. 이 중 휴학 경험 대졸자는 각각 8,551명, 13,173명이 응답하여 2011년은 약 70% 정도의 응답률을 나타내지만 2009년은 50% 정도의 응답률을 기록하여 2년간의 응답률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휴학 경험 대졸자 중 휴학선택 사유에 응답한 수는 2009년 6,029명, 2011년 6,518명으로 집계되었다. 본 연구는 휴학 선택 사유를 어학연수, 취업/진학준비, 경제적 사유 이렇게 세 범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휴학선택 사유 중에서 군입대, 해외여행, 건강 사유 등은 제거하였다. 직장인 대학생은 취직된 상태에서 대학을 다녔으므로 이들은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휴학유형에 대하여 분석하기 이전 취업자와 비취업자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분석해 보았다. 로짓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어학연수, 경제적 사유, 그리고 취업준비/진학준비에 따른 취업자/비취업자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못하다. 따라서 휴학유형은 취업여부에 그다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최종 표본크기의 경우 2011년 임금수준은 4,961명, 취직소요기간은 4,809명, 그리고 합격률은 2,929명이다. 2009년은 임금수준 5,495명, 취직소요기간 5,307명, 그리고 합격률 3,557명으로 집계되었다. 2009년 2011년 두 개 연도의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분석한 이유는 통계분석 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두 개 연도의 자료가 표본의 차이 등 여러 이유로 통계 결과가 정확하게 일치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두 개 연도의 통계결과가 어느 정도 일치된다면 휴학유형과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시사점이 일반화될 수 있다고 본다.

2. 측정 변수의 구성

가. 휴학유형

휴학유형은 대학재학 시 휴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조사한 문항들을 활용하여 생성하였다. 휴학유형은 군 입대 외에 어학연수/해외여행, 편입학 및 재수준비, 자격증 및 고시준비, 대학원(유학준비), 취업 및 취업준비, 경제적인 이유, 건강상의 이유, 기타 등으로 분류된다. GOMS는 응답자들에게 휴학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다섯 가지를 선택하여 순위를 매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응답에서 거의 모든 응답자가 두세 가지 이유를 선택하여 순위를 매겼으며 네다섯 가지 휴학이유를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다. 휴학을 선택하게 된 첫 번째 이유를 휴학을 선택하게 된 최종적인 이유로 간주하였다. 군 입대 휴학이 첫 번째 순위로 기입되어 있는 경우 두 번째 사유를 휴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로 보았다. 어학연수/해외여행에서 어학연수 경험 유무를 설문한 문항과 중복된 부분만므로 어학연수로 인한 휴학을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었다. 취업/진학준비는 편입학 및 재수준비, 자격증 및 고시준비, 대학원(유학준비), 취업 및 취업준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적 사유로 인한 휴학은 경제적인 이유로 조사하였다. 휴학사유를 어학연수, 취업/진학준비, 그리고 경제적 사유로 분류하여 더미변수로 만들어 활용하였다.

휴학유형 변수를 생성함에 있어서 해외어학연수휴학과 경제사유휴학을 첫 번째(두 번째), 두 번째(첫 번째) 휴학사유로 응답하는 경우, 첫 번째 휴학사유만으로 휴학유형 분류가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어학연수휴학과 경제사유휴학을 첫 번째, 두 번째 사유로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다. 경제사유휴학을 첫 번째, 해외어학연수휴학을 두 번째 사유로 선택한 응답자는 2009년 2011년 각각 5명 내외로 집계되었다. 이렇듯 해외어학연수휴학과 경제사유휴학이 우선순위에서 겹치는 사례가 드물어 휴학사유를 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나. 경력목표

대학졸업 이전에 설정했던 경력목표가 있는지 조사된 문항을 더미문항으로 만들어 연구모델 검증에 활용하였다(경력목표 없음: 0, 경력목표 있음: 1).

다. 노동시장 성과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로 임금수준, 취업소요기간, 그리고 합격률을 활용하였다. 임금수준은 보고된 현 직장의 임금을 정규화 가정을 충족시키고자 로그로 변환하여 계산하였다. 취업소요기간은 대학졸업 연도 개월과 첫 직장 혹은 현 직장 입사연도와 개월의 차이로 계산하였다. 취업소요기간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생활을 했던 직장인들은 분석에 제외하였다. 합격률은 합격제의 횟수를 입사지원 횟수로 나누어서 계산하였다.

라.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성별, 최종학력, 대학교 수도권 소재지, 정규직/비정규직, 소속 직업군, 회사 규모, 임금수준, 회사 재직기간, 학점, 영어점수 유무, 가계소득수준, 아버지 교육수준 등으로 구성하였다. 성별(남성: 1, 여성: 0), 최종학력(4년제 대학교: 1, 전문대학: 0),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서울·경기권: 1, 타 권역: 0), 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 1, 비정규직: 0) 등이 더미변수로 조작되었다. 소속된 직군을 사무직군, 보건의료직군, 공무원직군, 엔지니어링직군, 기타직군으로 구분하였다. 사무직군은 관리직,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금융·보험관련직,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관련직으로 구성된다.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섬유 및 의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관련직은 엔지니어 직군으로, 구성된다.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과 군인은 공무원 직군으로, 보건의료 관련직은 보건의료직군으로 구성된다. 회사 크기는 아홉 가지 척도로 설문하였다 ① 1~4명, ② 5~9명, ③ 10~29명, ④ 30~49명, ⑤ 50~99명, ⑥ 100~299명, ⑦ 300~499명, ⑧ 500~999명, ⑨ 1,000명 이상이다. 회사크기를 1~49명, 30~299명, 300~999명, 1,000명 이상 이렇게 네 개 더미그룹으로 만들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회사 재직기간은 2009년 혹은 2011년에서 현 직장 취업시작연도

를 차감하여 계산하였다. 영어점수 유무는 더미변수로 조사되었다(영어점수가 있으면 1, 없으면 0). 학점은 만점인 4.0, 4.3, 4.5에서 졸업평점을 나누어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출신고등학교의 계열은 일반계고, 외국어고, 과학고, 예체능고, 상업계고, 공업계고, 농업·수산·해양계고, 기타 등으로 설문되었다. 이 중 직업중심으로 운영되는 상업계고, 공업계고, 농업·수산·해양계고는 0으로 그 외 다른 고등학교는 1로 바꾸어 계산하였다.

도구변수는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가계소득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전문대, ⑥ 대학, ⑦ 대학원 석사학위 이상 이렇게 일곱 가지 척도로 설문하였다. 아버지 교육수준은 교육연수로 계산하여 무학은 0, 초등학교는 6, 중학교는 9, 고등학교는 12, 전문대는 14, 대학은 16, 대학원은 18로 각각 바꾸어 계산하였다. 가계소득수준은 여덟 가지 척도로 설문하였다 ① 100만 원 미만, ② 100만~200만 원 미만, ③ 200만 ~300만 원 미만, ④ 300만~400만 원 미만, ⑤ 400만~500만 원 미만, ⑥ 500만~700만 원 미만, ⑦ 700만~1,000만 원 미만, ⑧ 1,000만 원 이상이다. 연속형 변수로 만들기 위하여 6은 7으로(700만 원) 7은 10으로(1,000만 원) 8은 11으로(1,000만 원 이상) 각각 계산하였다.

IV. 실증분석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 표본에서 남성/여성 비율은 약 절반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연령은 대체적으로 25~30세 사이에 분포되어 있으며 85% 이상의 응답자가 4년제 대학을 마쳤으며 나머지 15%는 전문대학을 졸업하였다. 응답자 중 절반은 수도권 소재 대학을 졸업하였다. 직장업무는 사무직군이 약 50% 정도, 엔지니어링직군이 약 20% 정도를 기록하였다. 가계소득수준은 보통 월 300만~400만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응답자 중 30% 정도가 어학연수, 10% 정도는 경제적 사유, 나머지 60% 정도가 취업/진학준비로 인하여 휴학하였다. 약 60% 정

도의 직장인들은 대학재학 시 경력목표를 지니고 있었다. 회사 재직기간은 1~2년 정도로 대학졸업 후 사회생활경험이 낮은 수준이다. 월급은 약 200만 원 정도, 취직소요기간은 약 6~7개월 정도이며 합격률은 약 35%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합격률 중에서 입사지원한 회사에 전부 100% 합격한 대졸 직장인은 2011년 450명, 2009년 634명으로 전체 합격률 응답자의 약 16~17% 정도로 집계되었다.

〈표 1〉 기술통계분석

	2011 ¹⁾		2009 ²⁾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별더미	.55	.49	.63	.48
최종학력(대학교/전문대학)	.86	.32	.85	.35
수도권 소재 대학졸업	.53	.50	.48	.50
학점	.81	.09	.81	.09
고등학교계열(인문/전문)	.92	.27	.91	.28
사무직군	.55	.50	.51	.50
보건의료직군	.03	.17	.02	.15
공무원직군	.02	.14	.01	.11
엔지니어직군	.19	.39	.22	.41
타 직군	.21	.41	.23	.42
회사크기(1~29명)	.21	.41	.39	.49
회사크기(30~299명)	.26	.44	.36	.48
회사크기(300~999명)	.14	.35	.13	.33
회사크기(1,000명 이상)	.38	.48	.13	.33
정규직/임시직	.88	.32	.68	.47
가계소득수준	4.47	2.71	4.36	2.61
재직기간(년)	2.02	1.22	1.04	.99
아버지 교육수준(년)	12.86	3.25	11.20	3.05
어학연수휴학	.32	.46	.27	.44
경제휴학	.12	.44	.11	.31
취업/진학준비휴학	.55	.49	.62	.48
경력목표설정	.62	.49	.65	.47
임금수준 ¹⁾ (만 원)	206.96	94.98	194.57	87.22
졸업 후 취직까지 소요기간 ²⁾ (개월)	7.35	7.08	6.80	6.99
합격률 ³⁾	.35	.39	.37	.34

주: 1) 2011년 표본크기=4,961명; 2009년 표본크기=5,495명.

2) 2011년 표본크기=4,809명; 2009년 표본크기=5,307명.

3) 2011년 표본크기=2,929명; 2009년 표본크기=3,557명.

2. 상관관계분석

〈표 2〉 상관관계분석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①		-.07	-.08	-.15	-.06	-.19	-.09	.02	.28	-.01	-.01	.01	.01	.15	-.10	.10	-.10	-.14	-.07	-.20	.20	-.01	.26	-.13	-.06	
②	.00		-.02	-.09	.47	.17	-.11	.02	-.06	-.10	-.01	-.00	.00	.00	.01	.13	-.01	.13	.11	.20	-.11	-.11	.12	.15	-.04	-.19
③	-.06	.00		-.09	.09	.07	-.04	-.01	-.03	-.03	.01	.01	.02	.03	.03	.15	.03	.10	.20	.08	-.02	-.06	-.03	.16	-.04	-.11
④	-.15	-.11	-.08		-.02	.06	.02	-.02	-.05	-.01	-.01	-.01	-.00	-.00	.00	.03	-.01	.03	.01	.07	.01	-.08	.07	.03	-.08	.03
⑤	.01	.41	.07	-.00		.12	.01	.00	-.08	-.07	.00	-.00	-.01	-.01	.01	.12	-.03	-.12	-.13	.13	-.08	-.07	.07	.11	-.03	-.10
⑥	-.17	.16	.06	.05	.10		-.16	-.12	-.54	-.56	-.03	-.03	-.02	-.02	-.09	.08	-.02	.08	.08	.06	.00	-.06	.00	-.01	.03	-.05
⑦	-.08	-.20	-.02	.01	-.03	-.19		-.02	-.08	-.08	-.00	-.01	-.00	-.01	-.01	-.01	-.04	-.01	.01	-.01	.07	-.03	.01	-.03	.00	.10
⑧	.06	-.00	-.02	.01	-.03	-.16	-.02		-.06	-.06	-.01	-.00	-.00	.04	.00	.09	.00	-.02	-.04	-.03	.06	.03	.06	.02	.05	.05
⑨	.25	-.02	-.02	-.05	-.06	-.53	-.08	-.07		-.29	-.01	.01	.01	.01	.14	-.07	.06	-.07	-.09	-.05	-.06	.08	-.02	.14	-.12	-.05
⑩	-.02	-.08	-.04	-.01	-.06	-.57	-.09	-.07	-.25		.05	.02	.02	.02	-.03	-.02	-.04	-.02	-.01	-.01	.03	-.02	-.00	-.14	.08	.07
⑪	-.12	-.13	-.07	-.02	-.10	-.10	.03	-.02	-.05	.17		-.60	-.30	-.30	-.03	.00	-.02	.01	-.01	.01	-.00	.04	-.02	-.05	.02	.01
⑫	-.02	-.03	-.06	-.02	-.05	-.02	.01	.02	-.02	.04	-.31		-.29	-.28	-.03	.02	-.00	.02	-.01	.02	-.01	.01	-.01	-.02	.00	-.00
⑬	.03	.05	.01	-.00	.04	.03	.02	-.01	.02	-.03	-.21	-.24		-.14	-.03	.03	.00	.02	-.00	.03	-.01	.03	.03	-.01	-.01	-.01
⑭	.09	.10	.11	.04	.10	.08	-.05	-.01	.08	-.16	-.41	-.47	-.32		.03	.03	.00	.02	-.00	.03	-.02	-.04	.01	-.01	-.01	-.00
⑮	.11	.00	-.01	.01	-.01	-.09	.03	.04	.13	-.04	-.11	.01	.03	.06		.04	.20	.04	.00	.06	-.10	-.02	.03	.35	-.22	-.07
⑯	-.10	.10	.10	.01	.08	.07	-.01	-.00	-.04	-.03	-.18	-.06	.06	.16	.03		-.01	.13	.10	.23	-.14	-.12	-.02	.13	-.04	-.04
⑰	.09	-.05	.03	.00	-.08	-.03	-.04	.12	.04	-.02	-.13	-.06	-.01	.17	.12	-.03		-.01	-.03	.00	-.05	.03	-.04	.25	-.62	.05
⑱	-.10	.10	.10	.01	-.08	.07	-.01	-.00	-.04	-.03	-.05	-.04	.01	.07	.03	.13	-.03		.36	.23	-.14	-.11	-.02	.13	-.03	-.04
⑲	-.09	.14	.20	-.00	-.17	.08	-.00	.01	-.08	-.02	-.06	-.03	.00	.07	-.01	.13	-.01	.32		.17	-.09	-.10	.00	.06	.00	-.01
⑳	-.00	.16	.04	.06	.12	.02	-.03	-.07	.04	-.03	-.12	-.04	.02	.12	.05	.16	-.04	.16	.13		-.21	-.78	.04	.13	-.08	-.13
㉑	-.16	-.16	-.00	.01	-.16	-.01	.03	-.02	-.04	.04	.10	-.03	-.03	-.09	-.06	-.16	-.02	-.16	-.13	-.25		-.45	-.01	-.14	.06	.05
㉒	.11	-.04	-.03	-.06	-.01	-.01	.01	.08	-.01	-.00	.17	.04	-.03	-.16	-.01	-.04	.05	-.05	-.04	-.78	-.41		-.03	-.03	.04	.09
㉓	.02	.08	.03	.06	.08	.01	.00	.02	.01	-.03	-.06	-.01	.02	.04	.05	.03	-.01	.03	.02	.04	-.05	-.01		.07	-.03	-.05
㉔	.28	.15	.13	-.00	.10	-.07	-.02	.07	.20	-.12	-.28	-.10	.00	.33	.37	.07	.25	.07	.07	.14	-.15	-.04	.12		-.30	-.13
㉕	-.11	-.01	-.06	-.09	-.01	.04	-.00	-.02	-.09	.05	.16	.05	.01	-.19	-.20	-.03	-.82	-.05	-.02	-.07	.06	.03	-.04	-.25		-.01
㉖	-.06	-.16	-.07	.04	-.11	-.03	.09	.03	-.03	.03	.13	.06	-.06	-.11	-.05	-.01	.05	-.02	-.13	.10	.06	-.03	-.12	-.02		-.02

주: 1) $r > .04$: $p < .05$, $r > .05$: $p < .01$ (양측검정).

- 2) ① 성별더미(0=여성; 1=남성), ② 최종학력(0=전문대학; 1=대학교), ③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0=비수도권; 1=수도권), ④ 학점, ⑤ 고교계열(0=전문화고교; 1=전문화 외 타 고교), ⑥ 사무직군, ⑦ 보건의료직군, ⑧ 공무원직군, ⑨ 엔지니어직군, ⑩ 타 직군, ⑪ 회사크기(1~29명), ⑫ 회사크기(30~299명), ⑬ 회사크기(300~999명), ⑭ 회사크기(1,000명 이상), ⑮ 정규직/임시직, ⑯ 영어점수유무, ⑰ 재직기간, ⑱ 가계 소득수준, ⑲ 아버지 교육수준, ⑳ 어학연수휴학, ㉑ 경제휴학, ㉒ 취업/진학준비휴학, ㉓ 경력목표(0=경력목표 없음; 1=경력목표 있음), ㉔ 임금수준, ㉕ 졸업 후 취직까지 소요기간, ㉖ 합격률.
- 3) 2011년은 상관관계표 대각선 아래에, 2009년 자료는 상관관계표 대각선 위에 분포되어 있음.
- 4) 임금수준은 2011년 표본크기 4,961명; 2009년 표본크기 5,495명.
- 5) 취직소요기간은 2011년 표본크기 4,809명; 2009년 표본크기 5,307명.
- 6) 합격률은 2011년 표본크기 2,929명; 2009년 표본크기 3,557명.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어학연수 휴학은 임금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2009년: $r=.13$, $p<.01$; 2011년: $r=.14$, $p<.01$) 취직소요기간과(2009년: $r=-.08$, $p<.01$; 2011년: $r=-.07$, $p<.01$) 합격률에는(2009년: $r=-.13$, $p<.01$; 2011년: $r=-.13$, $p<.01$)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적 휴학은 임금수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2009년: $r=-.14$, $p<.01$; 2011년: $r=-.15$, $p<.01$) 취직소요기간과(2009년: $r=.06$, $p<.01$; 2011년: $r=.06$, $p<.01$) 합격률에는(2009년: $r=.05$, $p<.01$; 2011년: $r=.10$, $p<.01$)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관관계분석은 휴학유형에 따라 노동시장 성과인 임금수준, 취직까지의 소요기간, 합격률이 유의미하게 달라짐을 시사하고 있다.

3. 가설검증

노동시장 성과인 임금수준은 휴학을 선택하는 이유 외에도 다양한 개인특성, 사회배경변수 등에 의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최종학력(4년제/전문대학), 수도권 소재지, 출신고교계열, 부모 임금수준, 학점 등 다양한 개인적, 사회배경 특성변수들을 통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설명변수인 휴학 선택사유와 노동시장 성과인 임금수준은 현 연구모델에서 생략된 변수들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휴학 선택사유와 오차항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내생성이 의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도구변수법을 활용하여 내생성을 통제하려고 한다. 가계소득과 아버지 교육수준을 도구변수로 활용하여 휴학유형에 대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가계소득과 부모님의 교육수준의 경우 초·중등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대학교육 이후부터는 영향력이 줄어든다. 따라서 가계소득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졸업 후 임금수준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계소득이 높아야 대학생들이 어학연수를 갈 수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으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관심이 높아 어학연수에 대한 관심이 높다. 노동시장 성과와 달리 어학연수는 가계소득 및 부모의 교육수준과 유의미한 연관관계를 지니므로 도구변수로 선정하였다. 임금수준은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2단계 최소제곱추정법을 이용하여 휴학유형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취직소요기간의 경우에는 대학졸업 직후 취직된 직장인 비율이 약 26% 이상이므로 통계분포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합격률의 경우에는 입사지원자 중

약 16~17%가 입사 지원기업에 전부 합격되었다고 응답하여 표본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 표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토빗분석이 적절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토빗방정식을 활용하여 휴학유형과 합격률의 연관관계를 추정하였다. <표 3>과 <표 4>에서 모델 I은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어학연수휴학, 경제적 사유 휴학) 검증하였으며 모델 II는 조절변수(경력목표) 그리고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을 검증하였다.

<표 3> 휴학사유와 경력목표 설정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1단계분석 어학연수 휴학	2011					
		입금수준 ¹⁾		취업소요기간 ²⁾		합격률 ³⁾	
		I	II	I	II	I	II
성별더미	-0.0 (.01)	.18** (.01)	.18** (.01)	-.35* (.15)	-.35* (.15)	-.03* (.01)	-.03* (.01)
대학교/전문대학	.11*** (.02)	.11** (.02)	.07 ⁺ (.03)	.37 (.26)	.36 (.27)	-.12*** (.02)	-.12*** (.02)
수도권 소재 대학졸업	-.01 (.01)	.08** (.01)	.07*** (.01)	-.22 (.15)	-.22 (.15)	-.07** (.01)	-.07*** (.01)
학점	.32*** (.07)	.00 (.07)	.02 (.08)	-4.08*** (.85)	-4.01*** (.86)	.10 (.08)	.11 (.08)
고등학교계열	.06* (.02)	-.01 (.02)	-.05 (.03)	.24 (.30)	.24 (.30)	-.04 (.03)	-.04 (.03)
사무직군	-.03+ (.02)	.02 (.01)	.02 (.02)	.11 (.19)	.12 (.19)	-.01 (.02)	-.02 (.02)
보건의료직군	-.03 (.04)	.16** (.04)	.13** (.04)	-1.30** (.44)	-1.29** (.44)	.16*** (.04)	.17*** (.04)
공무원직군	-.22** (.05)	.22** (.05)	.22** (.06)	-.56 (.61)	-.57 (.61)	.09 (.06)	.09 (.06)
엔지니어 직군	.02 (.02)	.13** (.02)	.13** (.02)	-.59* (.24)	-.58* (.24)	-.01 (.02)	-.01 (.02)
회사크기(1~29명)	-.10*** (.02)	-.19*** (.02)	-.18** (.02)	1.12** (.20)	1.11** (.20)	.07** (.02)	.07** (.02)
회사크기(30~299명)	-.06*** (.01)	-.09*** (.01)	-.09*** (.02)	.67** (.19)	.66** (.19)	.04* (.01)	.04* (.02)
회사크기(300~999명)	-.04* (.02)	-.09*** (.02)	-.09*** (.02)	.75** (.22)	.75** (.22)	-.01 (.02)	-.01 (.02)
정규직/임시직	.05* (.02)	.68** (.02)	.66** (.02)	-.67** (.22)	-.67** (.22)	-.06** (.02)	-.06** (.02)
영어점수 유무	.16*** (.01)	-.02 (.02)	-.04 (.03)	-.13 (.16)	-.13 (.16)	-.10*** (.01)	-.10*** (.01)
재직기간	-.0 (.00)	.04** (.00)	.05** (.00)	-10.60*** (.12)	-10.60*** (.12)	.04*** (.01)	.04*** (.01)
가계소득수준	.02** (.00)			.04 (.03)	.04 (.03)	.00 (.00)	.00 (.00)
아버지 교육수준	.02** (.00)			.01 (.02)	.01 (.02)	.00 (.00)	.01 (.00)

<표 3>의 계속

독립변수	1단계분석 어학연수 휴학	2011					
		임금수준 ¹⁾		취업소요기간 ²⁾		합격률 ³⁾	
		I	II	I	II	I	II
어학연수 휴학		.46** (.12)	1.27** (.48)	-.70 *** (.16)	-.32 (.26)	-.06** (.01)	-.05* (.02)
경제적사유 휴학		.06 (.04)	.34 * (.16)	-.08 (.23)	-.22 (.35)	.04+ (.02)	.05 (.03)
경력목표설정			.42** (.16)		.03 (.20)		-.02 (.02)
어학연수 휴학* 경력목표설정			-1.15* (.47)		-.58 ⁺ (.33)		-.01 (.03)
경제적사유 휴학* 경력목표설정			-.43* (.17)		.26 (.46)		-.01 (.05)
상수항	-.32*** (.07)	4.18** (.07)	3.92** (.13)	29.07 ** (.89)	29.00** (.90)	.49*** (.08)	.48*** (.08)
Weak IV 검정 /LR chi 2(14)		31.41	7.36	5,735.01	5,739.85	332.58	337.09
Wu-Hausman검정/ Log likelihood		13.80**	11.85**	-11,054.11	-11,051.69	-1,533.92	-1,531.66
Sargan 검정/Sigma		3.51	3.05	4.63*** (.05)	4.62*** (.05)	.36*** (.00)	.36*** (.00)

- 주 : 1) 표본크기=4,961명, 2단계 최소제곱추정법 회귀분석.
- 2) 표본크기=4,809명, 토빈방정식.
- 3) 표본크기=2,929명, 토빈방정식.
- 4) + : p<.10, * : p<.05, ** : p<.01(양측검정).
- 5) 회사크기는 1,000명 이상을 기준점으로 지정하였음.

<표 3>에서 1단계 추정결과를 보면 가계소득수준과($\beta = .02, p < .01$) 아버지 교육수준은($\beta = .02, p < .01$) 해외연수휴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1년 임금수준과 취직소요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한 2단계 최소제곱추정법 회귀분석 모델에서 어학연수휴학은 취업/진학준비 휴학과 비교하여 임금수준을 높이고 있다($\beta = .46, p < .01$). 대학재학 기간 중 경력목표를 설정했던 대졸직장인의 임금이 그렇지 못한 대졸 직장인보다 유의미하게 높다($\beta = .42, p < .01$). 대학재학 중 해외어학연수 혹은 경제적 사유로 휴학하면서 경력목표를 설정한 대졸직장인들의 임금수준은 낮아지게 된다(해외어학연수 : $\beta = -1.15, p < .05$; 경제적 사유 : $\beta = -.43, p < .05$). 어학연수 휴학은 취업/진학준비 휴학과 비교하여 대학재학 기간 동안 경력목표를 설정한 대졸직장인의 경우 경력목표가 없는 대졸

직장인들과 비교하여 약 월 8만 5,000~9만 원 정도 높은 임금을 받는다. 대학 재학 기간 동안 경제적 사유로 휴학하면서 경력목표가 있는 대졸 직장인들은 월 7만 원 정도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도구변수 활용의 적정성은 Wu-Hausman F-검정, Weak IV검정, 그리고 Sargan검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Weak IV검정은 31.41로 도구변수와의 관련성은 유의미하다. Wu-Hausman F-검정은 임금 수준 13.80로 도구변수를 이용한 추정이 타당함을 입증하고 있다. Sargan검정은 도구변수들이 외생성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 도구변수들의 유용성을 입증하고 있다(3.51).

Wu-Hausman F-검정, Weak IV검정, 그리고 Sargan검정 등에서 취직소요기간과 합격률은 2단계 최소추정제곱법 회귀분석모델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분석되었다. 표본의 기울기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므로 토빗회귀분석을 활용하여 휴학유형과 취직소요기간 그리고 합격률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011년 모델 분석에서는 휴학유형과 경력목표는 취업소요기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합격률의 경우에는 어학연수휴학은 합격률을 낮추지만($\beta = -.06, p < .01$) 경제적 사유 휴학은 합격률을 근소하게 높이고 있다($\beta = .04, p < .10$). 어학연수휴학은 취업/진학준비휴학과 비교하여 합격률을 약 2% 정도 낮추어 합격률이 약 35%로 추정된다. 전체 표본의 일자리 지원 횟수는 평균 18회, 합격 횟수는 약 2회 정도이다. 어학연수 휴학자와 경제적 사유 휴학자의 일자리 지원 횟수는 각각 평균 21회와 평균 14회이다. 이들의 합격 횟수는 2회 정도로 일자리 지원 횟수는 유의미하게 다르지만 합격 횟수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휴학유형에 따라 일자리 지원 횟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므로 합격률 또한 달라진다.

<표 4>에서 2단계 최소제곱추정법 회귀분석으로 2009년 휴학유형과 임금수준 그리고 취직소요기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으나 Sargan검정이 15.26으로 도구변수가 외생성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도구변수들의 유용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2009년 연구모델은 2011년과 달리 다중회귀분석으로 휴학유형과 임금수준 및 취직소요기간의 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어학연수휴학은 취업/진학준비 휴학과 비교하여 임금수준을 높이며($\beta = .06, p < .001$) 취직소요기간을 낮추고 있다($\beta = -.51, p < .01$). 2011년과 달리 경력목표와 대학재학 중

휴학사유와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하다(어학연수휴학: $\beta = .03, p > .10$; 경제적 사유 휴학: $\beta = .02, p > .10$). 2011년 모델과 동일하게 2009년 모델에서도 어학연수휴학은 합격률을 낮추고 있다($\beta = -.06, p < .01$).

〈표 4〉 휴학사유와 경력목표의 상호작용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2009					
	임금수준 ¹⁾		취업소요기간 ²⁾		합격률 ³⁾	
	I	II	I	II	I	II
성별	.19*** (.01)	.19*** (.01)	-.67*** (.15)	-.67*** (.15)	-.05* (.01)	-.05* (.02)
대학교/전문대학	.14*** (.02)	.13* (.02)	.77** (.23)	.81*** (.23)	-.15*** (.02)	-.15*** (.02)
수도권소재 대학졸업	.10*** (.01)	.11*** (.01)	.01 (.14)	.00 (.14)	-.08*** (.01)	-.08*** (.01)
학점	.30*** (.06)	.28*** (.06)	-4.54*** (.81)	-4.44*** (.81)	-.00 (.08)	.01 (.08)
인문/전문계열 고등학교	.02 (.02)	.02 (.02)	-.19 (.27)	-.18 (.27)	-.00 (.03)	-.00 (.03)
사무직군	.05*** (.01)	.05*** (.01)	.01 (.17)	.00 (.17)	-.03* (.01)	-.03* (.01)
보건의료직군	.17*** (.03)	.17*** (.03)	-1.21*** (.44)	-1.21*** (.44)	.18*** (.04)	.18** (.04)
공무원직군	.17*** (.04)	.17*** (.04)	.27 (.71)	.28 (.71)	.29*** (.10)	.29*** (.10)
엔지니어직군	.13*** (.01)	.13*** (.01)	-.67*** (.21)	-.68*** (.21)	-.04* (.02)	-.04* (.02)
회사크기(1~29명)	-.10*** (.01)	-.10*** (.01)	1.33*** (.24)	1.32*** (.24)	.04* (.02)	.04* (.02)
회사크기(30~299명)	.02 (.00)	.02 (.01)	1.09*** (.23)	1.07*** (.23)	-.00 (.02)	-.00 (.02)
회사크기(300~999명)	.07*** (.01)	.07*** (.01)	.72** (.28)	.72*** (.28)	-.03 (.02)	-.03 (.02)
정규직/임시직	.33*** (.01)	.33*** (.01)	-.33* (.15)	-.32* (.15)	-.05*** (.01)	-.05*** (.01)
영어점수 유무	.06*** (.01)	.06*** (.01)	-.48*** (.15)	-.47*** (.15)	-.12*** (.01)	-.12*** (.01)
재직기간	.07*** (.00)	.07*** (.00)	-10.90*** (.12)	-10.90*** (.12)	.05*** (.01)	.05*** (.01)
가계소득	.01 (.00)	.01 (.00)	.00 (.03)	.00 (.03)	.00 (.00)	.00 (.00)
아버지 교육수준	.00 (.00)	-.00 (.00)	-.00 (.02)	-.01 (.02)	.00 (.00)	.01 (.00)

독립변수	2009					
	입금수준 ¹⁾		취업소요기간 ²⁾		합격률 ³⁾	
	I	II	I	II	I	II
어학연수 휴학	.06*** (.01)	.03* (.02)	-.51** (.17)	-.71** (.29)	-.06*** (.01)	-.05 ⁺ (.02)
경제적 사유 휴학	-.00 (.01)	-.01 (.02)	-.49* (.23)	-.65 ⁺ (.37)	-.02 (.02)	-.01 (.04)
경력목표설정		.04** (.01)		-.32 ⁺ (.18)		-.02 (.02)
어학연수 휴학* 경력목표설정		.03 (.02)		.30 (.34)		-.01 (.03)
경제적 사유 휴학* 경력목표설정		.01 (.03)		.26 (.45)		-.01 (.05)
상수	4.18*** (.06)	4.19*** (.06)	18.71*** (.83)	18.79*** (.84)	.65*** (.08)	.65*** (.08)
F 검정/ LR chi2(15)	156.65	136.74	6,664.03	6,667.08	404.00	409.51
R-squared/ Sigma	.35	.35	4.51*** (.05)	4.51*** (.05)	.38*** (.00)	.38*** (.00)

- 주 : 1) 표본크기=5,495명, 다중회귀분석.
 2) 표본크기=5,307명, 토빈분석.
 3) 표본크기=3,557명, 토빈분석.
 4) + : p<.10, * : p<.05, ** : p<.01(양측검정).
 5) 회사크기는 1,000명 이상을 기준으로 지정하였음.

해외어학연수 휴학은 취업/진학준비휴학과 비교하여 입금수준을 매달 약 13,600원을 높인다($\beta = .06, p < .001$). 토빗회귀분석에서 어학연수휴학은 취업/진학준비휴학과 비교하여 취업소요기간은 63% 단축시켜 약 4.3개월 정도 낮추며($\beta = -.63, p < .01$) 합격률은 약 2% 정도 떨어진다고 분석되었다($\beta = -.06, p < .01$). 경제적 사유 휴학 또한 취업소요기간이 49% 정도, 즉 3.3개월 정도 짧아진다고 분석되었다($\beta = -.49, p < .01$). 2009년에서 일자리 지원 횟수 전체 평균은 17.8회지만 어학연수 휴학 대졸 직장인은 일자리 지원 횟수가 21.5회로서 어학연수 경험자의 일자리 지원 횟수가 유의미하게 높다. 하지만 어학연수 경험자의 합격 횟수는 2.3회로 취업/진학준비 휴학자의 2.1보다 합격 횟수는 그다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경제적 사유에 의한 휴학의 경우 대졸

직장인은 일자리 지원 횟수가 15회로 전체 일자리 지원 횟수보다 약간 낮지만 합격제의 횟수는 약 2회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

<표 5>에서는 휴학을 경험하지 않은 비휴학자들을 포함시켜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모형에서는 휴학경험 유무를 포함시켜 휴학경험을 통제된 상태에서 휴학유형이 취업성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휴학경험자는 2009년 60%, 2011년 40% 정도로 집계되었다. 2011년 모델에서는 어학연수휴학, 경력목표설정이 임금수준을 높인다(어학연수휴학: $\beta = 1.28$, $p < .01$; 경력목표설정: $\beta = .30$, $p < .01$). 어학연수휴학은 또한 취직소요기간을 낮추고 있다($\beta = -.84$, $p < .01$). 대학 재학 시 어학연수휴학과 경제사유휴학은 경력목표설정과 부정적으로 상호작용되어 임금수준을 낮추고 있다(어학연수휴학: $\beta = -1.11$, $p < .01$; 경제사유휴학: $\beta = -.27$, $p < .01$). 2009년 모델에서는 경력목표설정은 임금수준을 높이지만($\beta = .03$, $p < .01$) 합격률을 떨어뜨리고 있다($\beta = -.03$, $p < .01$). 비휴학자를 포함하여 분석한 모델에서도 휴학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모델과 연구결과가 어느 정도 일치된다. 휴학경험 유무는 2011년 모델에서는 합격률에($\beta = -.07$, $p < .01$) 2009년 모델에서 임금수준($\beta = .06$, $p < .01$), 취직소요기간($\beta = 1.36$, $p < .01$), 그리고 합격률에($\beta = -.03$, $p < .01$)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휴학경험 유무는 취업성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휴학유형은 휴학경험이 통제된 상태에서 취업성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 휴학경험과 별개로 휴학유형의 효과는 검증될 가치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휴학을 학업의 중단으로 정의하고 주로 휴학과 학업성과와의 연관관계를 검증하였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휴학을 하는 목적에 따라 취업성파인 임금수준, 취업소요기간, 입사합격률 등이 달라진다고 분석되었다. 즉 휴학을 하려는 목적에 따라 휴학생들 각자에게 휴학이 지니는 의미가 달라진다. 이렇듯 휴학유형에 따라 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므로 앞으로 휴학에 대한 연구는 휴학의 기능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표 5〉 휴학사유와 경력목표의 상호작용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2011			2009		
	임금수준 ¹⁾	취업소요기간 ²⁾	합격률 ³⁾	임금수준 ⁴⁾	취업소요기간 ⁵⁾	합격률 ⁶⁾
성별	.21*** (.02)	-.08 (.18)	-.01 (.02)	.17*** (.01)	.23 (.58)	-.04** (.01)
대학교/전문대학	.03 (.02)	.02 (.18)	-.15*** (.02)	.13*** (.01)	5.81*** (.80)	-.11*** (.01)
수도권소재 대학졸업	.05*** (.01)	-.22 (.13)	-.08*** (.01)	.08*** (.01)	.82 (.54)	-.07*** (.01)
학점	.13** (.05)	-2.63*** (.76)	.17* (.09)	.16** (.04)	-6.06* (2.91)	.14* (.06)
인문/전문계열 고등학교	-.01 (.01)	-.00 (.20)	-.02 (.02)	.01 (.01)	1.19 (.92)	.02 (.02)
사무직군	.06*** (.01)	.45** (.17)	-.02 (.02)	.04*** (.01)	1.65** (.65)	-.05*** (.01)
보건의료직군	.24*** (.02)	-1.80*** (.27)	.14*** (.03)	.22*** (.02)	-5.54*** (1.47)	.18*** (.03)
공무원직군	.12*** (.03)	.90 ⁺ (.50)	.15 ⁺ (.08)	.16*** (.03)	5.93* (2.64)	.37*** (.07)
엔지니어직군	.16*** (.01)	-.06 (.22)	-.02 (.02)	.15*** (.01)	1.53* (.80)	-.06*** (.01)
회사크기(1~29명)	-.20*** (.01)	.73*** (.18)	.07*** (.02)	-.19*** (.01)	-2.10 (.91)	.04** (.02)
회사크기(30~299명)	-.07*** (.01)	.83*** (.17)	.06*** (.02)	-.07*** (.01)	-.86 (.89)	.01 (.01)
회사크기(300~999명)	-.09*** (.01)	.67*** (.22)	-.02 (.02)	-.03 ⁺ (.01)	-1.86 (1.10)	-.03 (.02)
정규직/임시직	.63*** (.01)	-1.06*** (.19)	-.08** (.02)	.34*** (.01)	.04 (.54)	-.07*** (.01)
영어점수 유무	-.03 (.02)	.56*** (.15)	-.11*** (.02)	.06*** (.01)	.63 (.58)	-.12*** (.01)
재직기간	.04*** (.00)	-.22*** (.02)	.05*** (.01)	.05*** (.00)	-23.41*** (.61)	.05*** (.00)
가계소득수준		-.01 (.02)	.00* (.00)	.01*** (.00)	.08 (.11)	.00 (.00)
아버지 교육수준		-.06*** (.02)	.00 (.00)	.00 (.00)	.11 (.08)	.00 (.00)
휴학경험 유무	-.06 (.04)	.06 (.20)	-.07** (.02)	.06*** (.01)	1.36** (.63)	-.03** (.01)

〈표 5〉의 계속

독립변수	2011			2009		
	임금수준 ¹⁾	취업소요기간 ²⁾	합격률 ³⁾	임금수준 ⁴⁾	취업소요기간 ⁵⁾	합격률 ⁶⁾
어학연수 휴학	1.28*** (.40)	-.84** (.30)	-.05 (.03)	.02 (.02)	.34 (1.16)	-.04 ⁺ (.02)
경제사유 휴학	.26*** (.10)	-.13 (.28)	.03 (.03)	.01 (.01)	-.93 (1.02)	.00 (.02)
경력목표설정	.30*** (.08)	-.02 (.17)	.01 (.02)	.03*** (.01)	1.30 (.62)	-.03* (.01)
어학연수 휴학* 경력목표설정	-1.11** (.37)	-.27 (.36)	-.02 (.04)	.04 ⁺ (.02)	-.81 (1.38)	-.02 (.02)
경제사유 휴학* 경력목표설정	-.27** (.08)	-.20 (.36)	-.05 (.04)	-.01 (.01)	.01 (.00)	.01 (.00)
상수	4.01** (.07)	8.22*** (.78)	.61*** (.09)	4.36*** (.04)	-1.69 (3.04)	.51*** (.06)
Wek IV 검정/F 검정/ LR chi2(15)	13.81	329.43	551.94	236.61	3,246.40	724.168
Wu-Hausman/ Log Likelihood	14.88	-29,328.45	-4,684.51		-9,984.53	-3,734.15
Sargan 검정/ R-squared/Sigma	6.97	6.53*** (.05)	.55*** (.00)	.34	16.14*** (.31)	.40*** (.00)

- 주 : 1) 표본크기=10,697명, 2단계 최소제곱추정법 회귀분석.
 2) 표본크기=10,723명, 토빈분석.
 3) 표본크기=5,491명, 토빈분석.
 4) 표본크기=9,882명, 다중회귀분석.
 5) 표본크기=9,915명, 토빈분석.
 6) 표본크기=5,883명, 토빈분석.
 7) + : p<.10, * : p<.05, ** : p<.01(양측검정).
 8) 회사크기는 1,000명 이상이 기준변수.
 9) 휴학경험 유무는 더미변수(1 : 휴학경험 있음; 0 : 휴학경험 없음).

V.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한국의 대학생활에서 휴학은 일반화되어 있다. 한국 사회는 휴학에 대하여 깊은 고민과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휴학에 대한 연구는 학업적 측면에서 대학생들이 휴학을 선택하는 이유를 탐색하는 데 그치고 있다. 본 연구

는 대학생들이 휴학을 선택하는 이유가 다양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고자 한다. 따라서 휴학을 하는 이유를 어학연수, 취업/진학준비, 그리고 경제적 사유 이렇게 세 유형으로 분류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어학연수로 인하여 휴학을 하게 된다면 대학졸업 후 임금수준은 높아지고 취직소요기간은 짧아지는 등 취업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게 된다. 반면 경제적 사유로 휴학을 하게 된다면 임금수준은 낮아지고 취직소요기간은 늘어나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휴학경험 유무는 임금수준을 높이고 취직소요기간을 늘리고 합격률을 낮추고 있다. 그럼에도 휴학유형과 취업성장을 분석해보면 휴학경험 유무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휴학경험과 더불어 휴학유형은 대학졸업 후 취업성장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재학 시 경력목표설정 또한 휴학사유와 연계되어 졸업 후 사회진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경력목표는 대학생 구직자들로 하여금 취업준비동기를 불러일으켜 취업준비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고 분석되었다. 대학재학 기간 동안 경력목표가 설정된 대학생들의 졸업 후 임금수준은 경력목표가 없는 대학생들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에 있다. 그럼에도 대학재학 시 경제적 이유로 휴학했으면서 경력목표가 뚜렷하다면 취업/진학준비에 의한 휴학과 비교하여 임금수준은 낮아지게 된다. 대학재학 기간 중 경력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여도 휴학하는 사유에 따라 경력목표에 대한 실현이 유의미하게 달라질 수 있다.

임금수준만을 고려한다면 어학연수에 의한 휴학은 대학생 구직자 개인에게 긍정적으로, 경제적 사유에 의한 휴학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입사지원 합격률을 분석해보면 어학연수휴학은 취업/진학준비에 의한 휴학과 비교하여 합격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어학연수휴학은 대학생 구직자 개인과 부모의 직장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인다. 이들이 다수의 기업체에 지원함에도 합격률은 다른 사유로 휴학한 대학생 구직자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처럼 휴학유형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성과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대학재학 시 경력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대학생들의 경우 임금수준이 경력목표가 부재한 대학생들보다 임금수준이 높다. 하지만 대학재학 시 경제적 사유로 휴학하게 되면 경력목표는 취직 후 임금수준을 낮추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 사유로 휴학한 대학생들에게는 경력목표 설정 시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대학재학 시 휴학을 선택한 이유와 졸업 후 취업은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다. 대학생들은 학업적 측면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휴학을 선택하고 있다. 휴학은 학업의 중단을 넘어서 대학생들 둘러싼 주변 환경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휴학을 선택하는 원인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학업관련 이론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휴학에 대한 연구는 개인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하는 포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대학생들의 휴학유형은 이들이 졸업 후 경력진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경력개발 측면에서의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학시절 휴학사유가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휴학경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럼에도 여러 한계점에 봉착하여 있다. 우선, 직장인들에게 대학시절의 휴학경험을 생각하여 응답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들은 과거경험을 회상하여 응답하였으므로 오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본 연구는 휴학유형과 노동시장 성과, 특히 임금수준에 있어서 내생성으로 인하여 인과관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하고자 한다. 2011년 임금수준의 경우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2단계 최소추정회귀분석 방법으로 내생성을 통제하고자 노력하였다. 도구변수요건을 충족시키려면 배제조건과 외생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가계소득수준이 임금수준의 외생변수이며 이 도구변수들이 해외어학연수만을 통하여 임금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2009년 임금수준 그리고 다른 취업성과 변수인 취업소요기간과 입사합격률은 도구변수를 활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타당성이 있는 도구변수 발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회귀계수해석에 있어서 지나치게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은 조심하여야 한다. 셋째, 방학 때 어학연수를 갔다 온 직장인이 각 연도마다 약 50명 정도도 표본에 포함되어 있으나 모델분석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차후 어학연수를 연구한다면 방학 때 어학연수와 휴학 때 어학연수의 구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넷째, 취업준비와 진학준비에 대한 구분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주제가 어학연수와 경제적 사유를 취업/진학준비와 비교하는 데 있으므로

근이 취업준비와 진학준비를 구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다섯째, 취직 소요기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직장에 재직하면서 대학생생활을 해온 직장인들을 제거하였다. 하지만 설문 응답에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여섯째, 휴학 사유 중 첫 번째 사유를 활용한 부분의 타당성에 대해서다. 현 연구는 첫 번째 휴학사유가 휴학사유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어학 연수 휴학과 경제적 사유 휴학은 휴학 우선순위를 선정함에 있어서 같이 선택되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럼에도 휴학선택에 있어서 첫 번째 순위만을 고려한 부분이 타당한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존재한다. 일곱째, 대부분의 표본 참가자들의 직장경력이 1~2년 밖에 되지 않아서 이직, 직무만족도 등의 연구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아쉬웠다. 마지막으로 <표 5>의 비휴학경험자를 고려한 연구모델 분석에서는 경제사유휴학이 임금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추정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본 연구는 대학재학 시절 휴학을 선택한 이유에 따라 졸업 후 노동시장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휴학의 시사점을 고민해 보았다. 앞으로 휴학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 사회가 대학생들로 하여금 휴학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이들이 알찬 청춘을 보내는 소중한 계기로 거듭나는 데 일조하기 바란다.

참고문헌

- 김성식(2005). 「대학생들의 학업중단 및 학교이동에 대한 탐색적 분석: 대학 선택요인과 대학생생활 만족도의 영향」. 『한국교육』 35(1): 227~249.
- 김수연(2012). 「대학 중도탈락생의 이동 경로 구조분석」. 『교육과학연구』 43(3): 131~163.
- 남재량·이철인·전영준·우석진(2011).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노경란·박용호·허선주(2011). 「진로개발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대졸 청년의 능력개발노력과 주관적 취업 만족에 미치는 영향」. 『직업능력개발연구』 14(2): 55~81.

- 박재민 · 엄미정 · 김윤영(2008). 「전공 - 직업 일치에의 장기적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13 (2) : 1~20.
- 박천수(2009). 「대학생의 해외어학연수가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12 (1) : 117~139.
- 이병식(2003). 「대학생의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기관특성의 탐색적 분석」. 『교육학 연구』 41 (2) : 137~154.
- 이자형 · 이기혜(2011). 「대졸자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의 구조적 관계: 비인지적 능력의 효과를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14 (2) : 27~54.
- 이찬영(2012). 「4년제 대학생의 재학 중 근로와 교육성과」. 『직업능력개발연구』 15 (3) : 1~25.
- 정태영 · 이기엽(2005). 「대졸자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학점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8 (2) : 159~182.
- 조선일보(2012.12.7). 「휴학생 100만명 시대... 한국 성장판이 막혀 있다」, 6면.
- 주회정 · 차성현 · 표민호(2011). 「대학생 휴학의 영향 요인 분석」. 『제6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 pp.55~81.
- 채재은(2011). 「대학생들의 휴학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9 (1) : 295~317.
- 한국고용정보원(2009). 『청년패널조사(YP) Youth Panel User's Guide』.
- 황여정 · 백병부(2008).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11 (2) : 1~23.
- Kanfer, R., Wanberg, C. R., and Kantrowitz, T. M.(2001). “Job Search and Employment : A Personality-motivational Analysis and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 (5) : 837~855.
- Oseguera, L., and Rhee, B. S.(2001). “The influence of institutional retention climates on student persistence to degree completion: A multilevel approach.”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50: 546~569.
- Oaxaca, R.(1973). “Male-female wage differentials in urban labor market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4 (3) : 693~709.

abstract

Korean College Student Stopout Experiences and Employment Outcomes

Hyondong Kim

Currently, stopout rates of Korean college students are reported to be more than 30%. Stopout rates have been significantly increasing in Korean college and that cause interests in what effects stopout of Korean college students have on their employment outcomes. The current study intends to use GOMS dataset collected by Korean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KEIS). Stopout of Korean college students have mixed effects on employment outcomes(wage, employment periods, and job acceptance rates). When Korean college students choose stopout for overseas exchange program, they are more likely to have better wages, make longer employment periods, and reduce job acceptance rates. But, stopout for economic reasons reduce wages. Career goals reduce wages and increase employment periods when they have stopout for economic reasons.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about how Korean society helps college students develop their career programs by considering why they choose stopout.

Keywords : college stopout, stopout reasons, career goal, employment outcomes